

보도시점 2024. 2. 7.(수) 조간 배포 2024. 2. 6.(화) 10:30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⑨]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립니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자는 298만명
- 이 중 259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
- 나머지 39만명도 연체금액을 '24.5.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 가능
- '24.3.12일(잠정)부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평점 자동 상승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 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연체발생자> ('23.12.31일 기준) 290만명 → ('24.1.31일 기준) 298만명

<전액상환자> ('23.12.31일 기준) 250만명 → ('24.1.31일 기준) 259만명

그리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이병철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조창선 (02-3705-5911)

①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00.1월)

- (대상) 채무불이행자 중 '97.11월~'99년말 내 발생한 소액 연체금*을 '00.3.31일까지 상환한 자

* 1천만원 이하 대출금 연체 및 1백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 연체

- (시행방식)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공유 중단 처리
- (효과) 약 32만명 공유 중단

②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01.5월)

- (대상) 채무불이행자중 '01.5.31일까지 연체가 상환된 자
- (시행방식)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공유 중단 처리
- (효과) 약 102만명 공유 중단

③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연체이력 공유 중단('21.8월)

- (대상) '20.1월~'21.8월 기간 중 2천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단기 연체 포함) 중 '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자
- (시행방식) 신용정보원·CB사에서 공유 중단 처리
- (효과) 약 228만명 공유 중단